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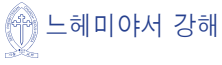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Ⅲ

(느헤미야 6:1~14)

이종윤 원로목사

느헤미야 4~5장에서 3종류의 반대자(대적자)들을 본다. 처음 두 종류의 반대자들은 이방인들 즉 외적 위협이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내부적 반대파들이었다.

모든 공사가 마쳐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적이 나타났다.

- ① 모사꾼(음모자)에 의한 반대가 있었다.
- ② 비난하는 자(조롱자)에 의한 반대가 있었다.
- ③ 험박자(공갈자)에 의한 반대가 있었다.

이들은 매우 교활했다.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지도자 느헤미야 개인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반대는 느헤미야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 의해 그들의 계약이 뒤집혔고 전술과 꾀가 무너진 것을 인식하여 결국 느헤미야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느헤미야가 망하기까지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얻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이 같은 전략은 효과가 없었다.

I. 음모

반대자들은 교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산발랏과 아람인(아라비아인) 게셈과 그 대적자들이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다섯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그들의 말투와 외형적 청함은 그럴듯하게 보였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다. 지금 모든 공사는 마쳐졌고 문짝다는 일만 남은 상태에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느헤미야의 공사를 방해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의 말은 이제는 친구로 함께 지내자는 것이다. 총독들끼리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노 평지(예루살렘에서 약 50km 못 되는 곳으로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한 곳)에서 회담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오게 하여 그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싸우는 것보다 회담(대화)이 좋아 보인다. 반대자들은 아직 문짝 다는 일이 남은 상태에서 그 일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느헤미야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느6:3)

1. 지도자는 '아니오(No)'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거절을 했다. 유능한 지도자,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한 설명 없이도 'No' 할 수 있다.

언제 'No'라고 할 것인가?

- ① 시험을 만났을 때

② 진리를 타협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③ 도덕문제에서 'No'라고 해야 할 때가 그때다. 그러면 누구에게 'No'라 할 것인가? 때로는 자녀에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친구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혜가 필요하다

메시지를 산발랏으로부터 받는 방법과 응답하는 방법에서 지혜가 필요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줄 알고 있었다(2절). 그러나 그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노 평지에 가기엔 내가 너무 바쁘다고 했다. 그 곳에 가려면 적어도 하루는 걸렸다. 결국 왕복 2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3일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는 문제의 주제(issue)를 분명하게 보았다.

II. 조롱(비난)하는 자들 : 유언비어 조작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하자 그들은 5번째 종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한 뜬소문이 지금 사방에 들리는데 빨리 와서 함께 수습하자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모반자로 오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5~7절).

자기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간신배 같은 이들도다.

경쟁 상대를 죽이는 방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흑색선전이 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사단의 수법이다. 그들은 느2:19에서 이미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며 해묵은 수법을 사용한다.

5절의 '봉하지 않은 편지'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뜻이다. 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느헤미야는 비난의 대상이 이미 되었다.

① 유언비어는 그 출처를 선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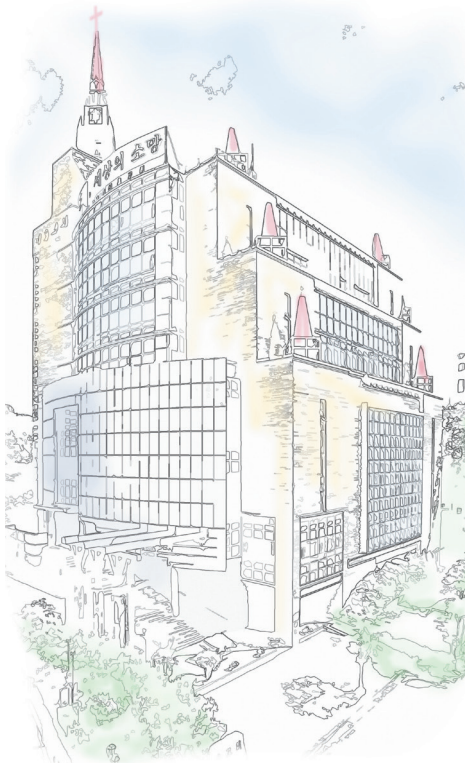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것이다.

② 유언비어는 어떤 사건을 과장하고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그 공개된 서신 가운데 한 가지 진리는 있다-유대인들이 성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다(6절). 그 밖의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개 거짓을 꾸미는 이들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③ 유언비어는 상처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느헤미야를 궁지로 밀어 넣었다. 그가 오노 평지로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면 그는 유언비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응하면 성 쌓는 일을 중단하고 그를 죽일 수 있으니 목적달성의 기회라 생각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다음 주 계속)



총회 재판국 재재심 개시 결정문 도착

총회재판국에서 제102회기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 개시 결정문이 도착하였다.

이것은 2017년 9월,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서울교회 위임목사 직위 부존재, 안식년 유효, 15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던 바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02회기 총회 재판은 우리측에 기피신청을 냈던 조 모 장로가 재판에 깊이 개입한 정황과, 불법 금

품 수수의 정황이 포착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재심을 요구하였고, 이번 103회기에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재심의 의미는 재심의 효력이 정지됨을 의미한다. 이제 2월 12일부터 열리는 총회 재판을 통하여 잘못된 재심 판결을 바로 잡고 101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수·박한옥 김광민 정복순 안흥희·전화진 장창수·박혜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 운동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원 후원자 명단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명단 (2019. 01. 24)

살롬권사회(1/2) 스테반회(1) 에스더전도회(1) 한나전도회(1) 김동수(1/2) 김정훈(1) 양춘경(이인숙)(1) 원유현(전성희)(1/2) 이승래(김정희)(1/2) 이준호(이은희)(1/2) 정치은(김영현)(1/2) 최봉애(한명주)(1) 하혜심(1/2)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2019. 01. 24)

살롬권사회(5) 스테반회(2) 에스더전도회(2) 한나전도회(3) 고선옥(1) 광태수(2) 김광옥(서영희)(2) 김정훈(5) 김정희(1) 김진숙(1) 노문환(장정화)(1) 박광식(1) 박동희(1) 양춘경(이인숙)(1) 이선희(1) 이재윤(1) 이준호(1) 장경원(1) 정을순(1) 정치은(김영현)(3) 흥승전(2) 흥정란(1)

한가정 한선교 후원자 명단 (2019. 01. 24)

정승자(1) 양춘경/이인숙(1) 정치은/김영현(1) 이범석(1/2) 김세호(1) 노문환/장정화(1) 양승호/고은희(1) 김봉배(1) 신재곤/김경자(1/2) 김석봉/박동희(1/2) 정완진/김희순(1) 백도환/석춘희(1/2) 흥승전(1) 최죽희(1/5) 권사회(2) 스테반회(1) 마리아전도회(1/2) 에스더전도회(1) 한나전도회(1)

다음 주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재심 개시 결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재재심 제102-19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의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재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재심 제102-9호(서울강남노회 서울교의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 제101-07호)] 사건 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서]

재재심청구인 : 1. 성명 : 노문환 성별 : 남 직분 : 장로
2. 성명 : 서문의 성별 : 남 직분 : 장로
3. 성명 : 양춘경 성별 : 남 직분 : 장로
4. 성명 : 최광성 성별 : 남 직분 : 장로

피재재심청구인 : 성명 : 김재남(서울강남노회장) (전노회장 김예식)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55, 601호 서울강남노회

제3자소송참가인(피재재심청구인) : 성명 : 박노철(서울교회)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redacted]

피재재심대상판결 : 2018. 2. 13. 선고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09호 판결

결정고지일 : 2019. 1. 15.

주 문

헌법 판정 제124조 4항, 제129조 제5항에 의거 재재심개시 결정한다.

* 총회 재판국 재재심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09호)

주 문 : 1. 원심판결(예총재판국사건 제101-07호)을 파기하고 재재심한다. 2. 원고들(재재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대법원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4. 판결일 : 2018년 2월 15일

재재심청구의 취지

1. 총회재판국에서 2018.2.13. 선고한 원심판결(서울교회 노문환 장로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결의 무효확인소송건, 예총재판국 제101-07호)"에 대한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9호 판결)을 취소한다.
2. 피재재심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대법원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 이유

총회재판국은 본 재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9. 1.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2019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지도
영아부	2월 16일(토)	서울교회	나는 믿습니다 - 사도신경 학교 (창 1:1)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청년부	2월 8일(금) ~ 9일(토)	아가페 타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엡 1:23)	심우진 목사
사랑부	2월 17일(일)	서울교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 1:12)	심우진 목사

핸드벨 대원 모집

2부 핸드벨과이어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연령, 성별 무관)
- 강지은 대원: 010-3272-1420

권사회 월례회

오늘 3시 30분 101호

2019년 첫 권사회 월례회가 오늘 3부예배가 끝난 오후 3시 30분에 101호에서 열립니다. 권사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①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전화번호 ④ 주소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마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는 거듭된 횡포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공보

뉴스 기획·특집 가정예배 칼럼·제언

강원노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생계 더 막막'

서울교회 분쟁으로 지원금 전달 안돼
총회 고동위, 원활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작성 : 2019년 01월 11일(금) 17:47



강원노회(노회장:서상택)가 교회동반성장사업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며, 총회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고충을 속히 해결 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원노회를 지원하던 서울강남노회 산하 서울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교회자립사업 지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노회(노회장:서상택)가 교회동반성장사업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며, 총회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고충을 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원노회를 지원하던 서울강남노회 산하 서울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교회자립사업 지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월 19일자 교단지 「한국기독교공보」에 실린 강원노회 산하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관한 기사이다. (편집부)

지난 주 교단지 「한국기독교공보」에 그동안 서울교회가 지원하던 강원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서울교회 분쟁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서울교회는 1991.11.24. 교회 설립 직후부터 개척교회 상태임에도 이종윤 원로목사의 주장 아래 교회의 기본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치를 높이 들고 '파블로 체콥(체코) 선교사와 '김정윤·박숙경'(우간다) 선교사 등을 시작으로 백여 명 가까운 해외 전속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동시에 국내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

동”을 펼쳐 농어촌 미자립 목회자들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해 오던 중 2005년부터는 총회의 권유에 따라 배정받은 교회에 서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강남노회 이름으로 교회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월 빠짐없이 지원금을 보내 왔으며 위와 같이 해외선교사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지원되는 비용은 매달 수 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울교회는 교회 규정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시무 6년이 경과되는 2017년 안식년 휴무와 재시무투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시무를 주장하므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과반수 당회원은 2017.1.1.부터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매 주일 외부 목사를 청빙하거나 부목사들께 부탁하여 설교 등 예배를 주관하면서 기타 교회 행정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서울교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정지출의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당회장은 교회대표로서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을 소지하고, 나머지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은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분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당회장이 단독으로 은행에 예치된 교회예금을 인출할 수 없음을 물론 당회장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도 당회장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거래인감 날인이 없는 한 교회예금을 몰래 인출할 수 없으며 이는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해당 중이지만 그 스스로 안식년 휴무를 거부하며 거래인감을 대리당회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회는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 개시 이후에도 거래은행에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교회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의 안식년 휴무도 한시적이므로 예금통장에 대하여 새로이 청빙된 대리당회장으로의 대표자변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박노철 목사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려 하던 중 박노철 목사가 2017년 1월 20일 자신의 안식년 휴무 시행문제로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라며 교회에 속한 예금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분실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고 회계담당 직원만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까지 모두 변경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여 이후 총유재산인 서울교회 예금은 사실상 박노철 목사만이 독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위원들과 사무국장이나 재정담당 직원은 서울교회 재정운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비밀번호가 없어 수십억 원 되는 교회예금재산의 잔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당회는 2017. 9. 11.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판결이 선고되어 그때서야 서울교회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로 회복시켜 해외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금 등 긴급한 지출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박노철 목사는 2017. 10. 16. 서울교회 관할 삼성세무서를 방문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2017. 1. 20.자 전 총회장 이성희 목사 명의로 발행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교회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다시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고, 서울교회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며 교회예금 인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이후 사실상 서울교회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매월 지출되어야 할 해외 선교사 생활자금이나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송금되지 않아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9년 1월 4일 법원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결정으로 은행거래에 필요한 교회대표자 정정을 통해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곧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위임에 따라 허락하였다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으로 교회대표자 정정까지 보류되어 안타깝게도 그 지원기회를 다시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이처럼 급박한 해외선교사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막아 놓은 채 지난 10개월 여 이상 매주 수천만원, 매월 수억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불법용역 동원을 하여 교회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러한 용역비용이 혹시라도 이단으로 의심되는 제3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제공되는 돈은 아닌지까지 심히 걱정될 정도이므로 총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박노철 목사와 소속 서울강남노회의 거듭된 횡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분쟁교회 당회원들로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고통 받고 계실 수십명의 해외선교사들 및 강원노회를 비롯한 그동안 서울교회가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지원하던 경안노회, 전서노회, 땅골노회, 경기노회 등 여러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재정운영이 정상화 되어 그동안 섬겨왔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성도님들께서 하고 계신 농어촌100교회 후원비는 형편이 어려운 몇몇 교회를 선정하여 서울교회가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전도위원장 최광성 장로 드림

의 중요한 말씀
 인경하시요?
 어머니님 유물을 경건하다가 목사님께 보내시려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세봉하시고 못 부치신것
 아셨가 해서 복사해 보내드립니다.
 운명하시기 2-3일전에도이 좋은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서울교회 예배 CD를 들었습니다.
 서울교회를 많이 그리워 하셨던것 같습니다.
 오. 태. 강. 김. 민. 영. 드. 김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주 안에서 안녕하시옵니
 까. 지난 年初에는 혜진이 혼례식을 너무 은혜스럽
 게 집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은 하객들이 입
 을 모아(특히 사돈때)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다고
 서울교회 결혼식을 부러워들 하였습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길고도 또 길니다.
 모진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하던 겨울철도 4월과 함께 봄이 오나보다 생
 각 하였는데 4월 中旬이 지나 또 눈보라가 세로가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主日에 교회(영락교회) 가는 것 외에는 주로 집에
 만 있습니다.
 나무들에 핀 雪花들 窓으로 내다보며 너무 조용

앞바라 꽃이 피겠지요. 그때는 窓內로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들것 마시며 深 호흡을 해보려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窓를 열어 긴 겨울을 지내왔으며
 혜진은 '어스틴'에서 자주 잘 모시는 전희가유니다. 이제
 5월이되면 여름방학이 시작 되는데 잠깐 다녀간다고 소식
 이 왔습니 (비행기로 3시간)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도 다녀간다고 해서 토론토에
 봄과 여름은 活氣 爽快 같습니다. 저도 한번 서울로
 화력하러 모음기며 그정 목사님들 건강 하시고 서울
 교회가 민족복음화 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할수 있도록 두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최 반수 권사

편지왔어요

늘 그리운 서울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주 안에서 안녕하시옵니
 까. 지난 年初에는 혜진이 혼례식을 너무 은혜스럽
 게 집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은 하객들이 입
 을 모아(특히 사돈때)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다고
 서울교회 결혼식을 부러워들 하였습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길고도 또 길니다.
 모진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하던 겨울철도 4월과 함께 봄이 오나보다 생
 각 하였는데 4월 中旬이 지나 또 눈보라가 세로가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主日에 교회(영락교회) 가는 것 외에는 주로 집에
 만 있습니다.
 나무들에 핀 雪花들 窓으로 내다보며 너무 조용

하나기 한국 생각, 서울교회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생각하고 성경
 을 펴 놓고 읽다보면 어느 덧 서울교회 권사님들 열
 굴이 떠올라 그리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하든 저희들 심령 속에 말씀을 바로 심어
 주시려고 꼭꼭 누르시고 다져 주시던 목사님의 말
 씬을 듣던 귀에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이 생소하기
 만 합니다. 며칠간 최양혜 권사님이 찾아와서 같
 이 식사하면서 서울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老권사님들의 安否) 이제 5월이 되면 여기도 완
 연히 봄이라고 합니다. 푸른 잔디 數拾年자란 古木
 나무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겠지요. 그때는 窓門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深 호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참음성 있게 긴 겨울을 지내왔으
 니까요.
 혜진이는 '어스틴에서 자주 잘 있다는 전화가 옵
 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잠깐

다녀간다고 소식이 왔습니다.(비행기로 3시간)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도 다녀간다고
 하니 토론토에 봄과 여름은 공기도 活氣 爽快 것 같
 습니다. 저도 한번 서울에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서울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두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최반수 권사

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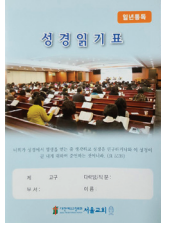
- 금주의 식사 : 백승갑 집사 박길자 권사 가정 (딸 결혼을 감사드리며) 짜장밥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가정한선교사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
 원, 비전2020운동 후원을 통해 민족복음화
 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 2019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
 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
 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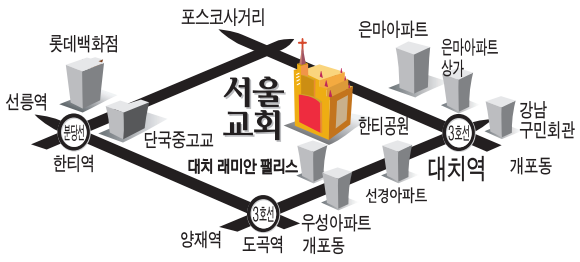
일년통독 성경읽기표가 웨
 민홀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1독/2독 마치시는대로 교구간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경읽기표는 매주일 순
 례자에 기재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가 말씀
 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28일	월	출 13-15		민 4-7	
1월29일	화	출 16-19		민 8-12	
1월30일	수	출 20:1-23:9		민 13-16	
1월31일	목	출 23:10-25:40		민 17-22	
2월1일	금	출 26-28		민 23-28	
2월2일	토	출 29-30		민 29-32	
2월3일	주일	출 31-33		민 33-36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